

지난 7 월 30 일에 저희 농아 신학교 창립예배에 함께하여주시고 농아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8 월 1 일부터 신학교에서 오후 6 시 30 분부터 9 시 30 분까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창세기를 강해,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농아신학생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있어서 저는 매우 행복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신학생들은 평균 10-12 명인데 나머지 5-7 명은 9-10 월에 합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농아인 1 명과 브라질농아인 1 명, 볼리비아농아인 1 명이 저희농아신학교에 신학공부하러 오고 싶다고 하였으나 형편이 많이 어려워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장소를 무료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농아신학생 몇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주차하는 곳이 없어서 빌딩과 먼 곳에 주차해야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빌딩문이 닫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기숙사는 그 주인(할머니)은 기꺼이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할머니의 아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기숙사 사용은 잠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상황이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되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이를 위해 기도와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 혼자와서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점점 익숙하고 있습니다.

한 농아 신학생이 저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태워주어서 신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 주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 월 12 일 토요일엔 신학교 뒷마당에서 핫도그 파티를 열어 농아신학생들과 함께 먹으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농아신학생들뿐만 아니고 농아교인들을 위하여 주일마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는 대로 콜롬비아 지방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김정철 목사 드림

















